

일본, '독도 왜곡' 교육 의무화 시기 앞당겨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전자정부 종합장구를 통해 당초 2022년에 고등학교에서 의무화하려던 독도 영유권 관련 교육 내용을 내년인 2019년부터 시작한다고 고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3월 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역사, 지리 등의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똑같은 내용을 지난해 3월 초등·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 바 있어 초중고교 모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문부과학성이 정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이 한 번 명기되면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되기 쉽지 않다.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은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에서 "다케시마는 현재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여러 번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임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가 있다."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설명하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내 월급 60% 삭감"

오는 12월 취임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지원 마련을 위해 대통령 월급을 6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무원들에게 제공되던 각종 보너스를 줄여 그 예산을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멕시코 엘 피난시에로에 따르면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전날 멕시코시티 대선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 예산은 모든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선 슬로건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임금구조에 대해 대대적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현재 대통령 월급 약 27만페소(약 15,000달러)의 40% 수준인 10만8,000페소(약 6,000 달러)로 월급을 낮출 계획이다. 또 고위공무원들에게 제공되던 보너스를 대폭 줄이고 운전기사, 수행원, 관료들의 여행 경비 제한 등 50여 가지의 비용절감 계획을 통해 연방정부 운영비도 70%가량 줄인

다는 방침이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긴축을 통해 연간 5,000억 페소(약 200억 6천 3백만 달러)를 절감하고 이를 사회복지와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장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올해 88페소(약 5달러)인 최저임금을 2024년까지 171페소(약 1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멕시코 근로자 하루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브라질의 절반, 칠레의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오브라도르 당선인의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엘 피난시에로는 '한 국가, 두 명의 대통령'이란 특집 기사를 통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모든 정치적 문제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취임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 여성들 10명 중 8명 피부표백제 사용

나이지리아 여성들의 피부표백제 사용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경향신문'이 나이지리아 일간 '뱅크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립피부과전문의협회(NAD)는 최근 열린 과학자회의 연례총회에서 "불법 피부표백제 판매와 사용을 조속히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뱅크드는 "지난 수년간 전문가들은 피부표백이 국민건강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여성 77%가 피부표백제를 사용한다. 세계 최고 비율이다. 수은, 트리콜로산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독한 피부표백제는 피부암, 신장암 등을 유발한다.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는 화장품 브랜드 니베아의 인종차별적인 피부표백제 광고로 논란이 일어났다. 미스 나

이지리아 출신 흑인 모델이 니베아 크림을 바르자 피부가 백인처럼 하얗게 변하는 광고였다. 세계 각국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내려라(PullItDown)' 해시태그를 쓰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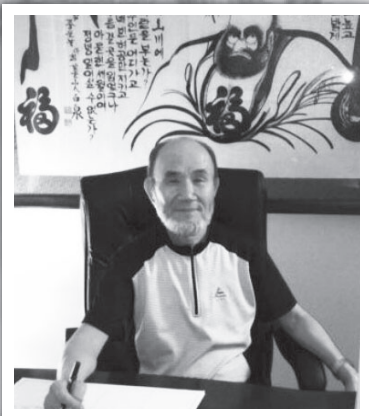
진짜 문제는 하얀 피부를 선망하는 사회문화와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나이지리아 출신 언론인 에미시 아데고케는 가디언 기고에서 "니베아 광고는 끔찍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 백인은 흑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 흑인 중에서도 피부색이 얼을수록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적었다.

올아프리카닷컴은 피부과 의사들의 규제 촉구 소식을 전하면서 "검은색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믿을 때까지 피부표백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